

2011년 8월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논문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지도 방안 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백 선 재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지도 방안 연구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Music Appreciation
using Music Therapy

2011 년 8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백 선 재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지도 방안 연구

지도교수 서영화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음악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11 년 4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백 선 재

백선재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혜경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한나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영화 인

2011 년 6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음악치료의 정의 및 과정	4
2. 음악치료의 방법	9
3. 음악 감상교육	18
III. 음악치료 감상기법	21
IV.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37
1.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설계	37
2.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지도 방안	41
VI. 결론 및 제언	44
참고문헌	47

표 목 차

<표 1>분트곡선 (역U곡선, 최적 복잡이론)	23
<표 2> 1차시 음악치료 감상 수업 지도 계획안	39
<표 3> 2차시 음악치료 감상 수업 지도 계획안	40
<표 4> 자유 연상적 음악 감상기법을 적용한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41
<표 5> 긴장 이완 음악 감상기법을 적용한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42

A B S T R A C T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Music Appreciation using Music Therapy

Baek, Seon-jae

Advisor : Seo, Young-hwa

Music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analyse music therapy and its actual effects on music classes for high school. Music appreciation for music therapy is applied for music class of high school can enhance sensitivity of adolescents. The music therapy program was designed to help students to maintain their mental status, to enhance socially adaptative abilities and recover confidence as they had much stress from excessive pressure of university entrance preparation and competitive school environments.

The core of music therapy program is experiences of music. When students experience music and are affected by music, they can make varieties of internal and external responses. Such sensitive responses can be applied for their emotional behavior.

Appreciation activities should be fulfilled through various kinds of music which cover wide range of ages and cultural zones. Students should listen to various sounds, explore and discuss them to grow musical sensitivity. Music class should emphasize such abilities as bases of all the musical activities.

Based on such theories, this study presented a music therapy program through which adolescents can understand composers of each age and historical background of each song, aiming at psychological therapy through appreciation of classic music. It can help them to increase their sensitivity and be relaxed. When music appreciation is applied for music class, adolescents can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classic music and healthier mental status. In consideration of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application of music therapy for music class can have direct influence on the students, more effective teaching methods with properties of music therapy should be developed.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음악은 현대인의 삶에서 비 언어적 매개체로써 긍정적인 신체 및 심리적 변화를 유도한다.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을 표현하기도 하여 음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감정·정서적 기능으로, 그 기능을 넓히고 성장하게 하여 청소년의 내면 안에서 역동적으로 느끼도록 한다.

청소년기에는 신체·생리적 성장과 더불어 정신적·사회적으로도 다양한 변화로 발달이 진행되고 과도한 입시 압박과 경쟁적인 학교 사회에서 성취하여야 할 발달이 많아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적 갈등을 많이 겪게 된다. 이런 정신적 문제는 흔히 감정적·정서적 표현의 결핍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음악을 통해 학생들을 회복시킬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단순히 음악만이 아닌 음악치료적인 기법으로 정신적 문제에 대해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논문에 제시한 생리적·심리적·사회적인 효과도 기대한다.

본 논문의 필요성은 위와 같은 음악의 치료적인 특성으로 음악교육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것에 있다. “청소년기는 인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측면이나, 학업 성취도를 위한 측면에서 정서적 안정이 특히 중요한 시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악의 역할은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¹⁾

학생들로 하여금 자의식(自意識)을 간직하도록 하며, 좋지 않은 면들을 긍정적인 면으로 향상시키는 기술을 발견하도록 하고, 부정적이고 취약 부분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어진 조건 안에서 약한 면을 강하게 하는 자기의 능력을 훈련하는 것이다. 정신적 질병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해 인간의 정신을 보호하고, 올바른 정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매체로서의 음악은 현대에 와서 더욱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 정서에 학교 생활에서도 올바른 정서 순화를 위한 바람직한 자

1) <이지아 (2004). 음악치료를 통한 청소년 교육에 관한 문헌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세와 가치관을 길러주고자 여러 음악 치료 기법을 적용시켜 단순히 치료만이 아닌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학생들의 정서에 가장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일이다. 위와 같은 필요성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관련 자료들을 연구함으로써 현재 고등학교 음악교육 과정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수업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논문은 음악치료의 이론적 배경을 알아보고, 음악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 중 감상 기법을 통해 정서 순화 및 안정과 감성증진 또는 긴장이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내용으로 삼는다.

첫째, 음악치료의 기본적인 정의를 내리고, 각각의 학설과 협회·기관에서의 다양한 유형의 정의들을 살펴본 후, 음악 감상 교육에 대한 의의와 감상 지도 방법 등을 기술 하였다.

둘째, 음악치료 감상기법으로 감상의 원리 및 유형, 음악치료 효과와 감상 종류 및 방법 등을 기술한다. 음악교육에서 음악치료 감상기법을 통한 학생들의 정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며, 효과적인 감성증진을 위한 감상 기법적용 방법으로 생리적, 연상적, 암시적, 인지적, 표현적인 여러 감상유형으로 집중할 수 있는 능력, 무엇을 들었는가를 이해하는 능력, 소리와 소리 패턴을 기억하는 능력으로 음악교육에서 치료 감상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셋째,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등학교 음악교육 중심으로 연구한다.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감상 수업 설계와 지도안으로 음악치료가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정서적인 측면으로 알아보고 구체적인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연구하여 제시한다.

타 논문과 서적 등을 통하여 음악치료의 효과에 대해 연구하고 그 결과를 기본으로 고등학교 음악교육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이는 음악수업에 음악치료의 효과를 반영하면서도 고등학교 음악교육

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 논문을 통해 음악치료의 정의 및 과정과 방법 그리고 원리 및 유형을 통해 음악치료의 실제적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고등학교 음악 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 프로그램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를 연구해 보고자 한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논문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음악치료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정신질환을 다스리기 위한 음악치료가 아닌 청소년기의 정서 함양을 위한 음악치료의 일반적 이론과 실제 방법을 연구하고, 이것을 고등학교 음악교육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주된 연구의 범위로 정한다.

따라서 고등교육 범위 안에 있는 청소년기의 정서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 시기의 효과적인 음악치료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연구한다. 또한 파악된 특징과 필요성에 적합한 활동들을 실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구체적인 학습 지도안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드러난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치료 활동은 적용하기 쉬운 치료 방법들을 일부 발췌하여 재구성 하면서 연구 할 것이다.

둘째, 교육의 현장에서 정서적 안정과 학습 효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다. 또한 음악치료는 내담자와 치료자의 관계가 개인 대 개인인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학교 수업의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개인 대 다수로 이루어진다. 이에 개별적인 치료 위주의 활동은 현장에서 활용되기 힘들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 프로그램의 계획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음악치료에 대한 논문과 자료들은 음악치료의 이론적인 고찰에 대한 것과 특정 질병들에 대한 치료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 교육 범위에 있는 청소년 연령기의 일반적 문제점을 위한 자료와 사례들에 있어서 그 범위가 폭넓지 못하다는 제한점이 따른다.

II. 이론적 배경

1. 음악치료의 정의 및 과정

우리가 소리를 느낄 수 있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적 수단으로서의 음악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음악치료는 ‘음악’의 범주에 속하는가, 아니면 ‘치료’의 범주에 속하는가? 음악은 창의성을 필요로 하는 상당히 주관적인 분야이고, 치료는 엄격히 주관성을 배제한 객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분야이다. 음악은 기꺼이 그러한 강력한 도구가 된다. 그 이유는 과학적 치료가 갖지 못하는 주관성, 예술성, 심미성, 개인성, 창의성, 즉흥성 등을 바로 ‘음악’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1) 음악치료의 정의

음악치료는 인간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음악치료(Music Therapy)는 예술성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음악과 과학적 측정을 기초로 하는 치료의 합성어로 음악을 매개로 하는 적극적이고 기능적인 심리치료이다.”²⁾ 음악 치료는 음악과 관련된 인간의 체험과 행동이다. 여기에서의 체험이란, 우리의 모든 기관 특히 청각이 소리를 수용하는 것이다.

첫째로 음을 지각하여 느끼는 것이다. 음악적 지각이란 인간의 음악적 지각 능력이 얼마만큼 선천적인 생물학적 구조에 의존하고, 얼마만큼은 후천적으로 얻게 된 경험, 즉 음악적 경험에 의존하는가 하는 것이다. 후천적 경험은 자신이 처한 시대와 문화권, 개인적인 능력과 취향, 그리고 학습에 의해 개발된 지각 능력이다. 지각은 후천적이고 문화 종속적 개념이므로 음악적 지각은 후천적 경험과 학습 그리고 음악 훈련에 그 가능성이 나타난다.

둘째로는 음악을 들으며 그림을 보거나 제시한 주제어 대해 연상을 하는 것이다. 그 음악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음악을 분석하여 다른 음악과 비교하는 것 등을 의

2) <문선혜 (2004). 음악치료에 이해와 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미한다.

셋째로는 희로애락의 감정들의 반응, 정서의 반응을 말한다.³⁾

음악치료의 방법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음악치료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하지만 “음악이 인간의 생리적·심리적·사회적 반응을 유발시킨다는 점에 근거하여 각 음악치료 학자·기관·협회들은 각각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고 있다.”⁴⁾

이 외에도 기관·협회에서 내리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음악치료는 치료를 목적으로 즉 정신과 신체 건강을 복원, 유지 시키거나 향상 시키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치료하는 환경에서 치료 대상자의 행동을 바람직한 방향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치료사가 음악을 단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미국 음악치료 협회 (American Music Therapy Association)

- 음악치료는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사람의 신체와 정신 기능을 향상 시켜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 더 나은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음악 활동의 전문 분야이다.

한국 음악치료 학회 (Korea Music Therapy Association)

- 음악치료는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통합을 돕고 결함을 치료하는데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은 다양한 치료형태를 가지고 모든 연령의 환자 영역에 적용된다. 음악은 비언어적 속성을 지니고 있지만 언어와 소리 표현에서는 광범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캐나다 음악치료 협회 (Canadian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 음악치료는 치료의 한 형태로서, 이를 통해 환자의 현재 조건에 치료를 가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치료사와 환자 상호간의 관계 형성과정이다. 치료사는 다양한 환자들과 함께 일하게 되며, 정서적·신체적·정신적·심리적인 결함을 지닌

3) <김문혜 (2003). **음악치료는 울림다리**. 삶과 꿈.>

4) <김종인 (2003).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 서울: 지식 산업사.>

아동이나 성인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임상적 상황에서 음악을 독창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치료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설정된 치료 목적의 달성을 위해 음악적 경험이나 활동을 나누고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영국 전문치료사 협회 (Association for Professional Music Therapists in Great Britain)

- 음악치료는 심리치료적인 관계 (Psychotherapeutic relation)형성을 위해 음악과 소리를 사용하는 것이다.

프랑스 음악치료 협회 (French Association for Music Therapy)

살펴본 바와 같이 음악치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들은 공통적으로 음악을 통해 내담자의 심리적인 변화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점을 음악치료의 주요한 정의로 내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음악치료의 과정

음악치료의 과정은 치료 대상자에게 잠재되어 있는 음악성을 일깨워서 외부 세계와 교류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환자가 자신의 환경과 현실에 대해 바람직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환자는 감정순화, 자긍심, 강화 등의 효과로 보다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게 된다.”⁵⁾

“다음에 제시되는 음악치료의 과정은 치료의 기본적 구조를 파악하여 가장 적절한 치료 목적과 목표를 순차적으로 세울 수 있도록 설명한 것이다.”⁶⁾

① 음악치료 의뢰

음악치료 프로그램의 가장 첫 번째 단계로 치료 의뢰 및 소개를 받는 것이다. 음악치료는 다른 전통적인 치료 수단으로 반응을 나타내지 않던 환자들의 주의를 끌 만한 독특한 측면을 수없이 가지고 있다. 일단 치료 의뢰서가 작성되면, 현재 보이고 있는 문제 행동을 기술하고 그에 따르는 종합적인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5) <김종인 (2003).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 서울: 지식 산업사.>p. 27

6) <김종인 (2003). **음악치료 지도서**. 서울 : 군자 출판사.>

② 유대감(rapport) 형성

치료 환자가 첫 번째 세션을 갖게 될 때, 성공적인 치료가 되기 위해서는 내담자와 치료사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내담자를 자세히 관찰하면 그들의 문제점과 관련된 더 많은 치료정보를 얻게 된다. 치료사가 내담자들을 돕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관심을 보인다면, 그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다. 이러한 친밀감은 내담자와 치료사 간(間)의 신뢰를 쌓게 해주고 내담자에게 심리적 이완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가 함께 치료관련 계약 사항에 동의하게 될 때, 더 좋은 치료적 관계를 위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③ 진단 평가(Assessment)

진단 평가는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자체에 대한 본질적인 면들을 밝혀내는 과정이다. 환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는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알아내고, 무엇을 알고, 모르는 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음악치료에서 진단 평가가 가지는 독특한 특징은 음악적 행동과 비 음악적 행동을 진단해 낼 수 있다는 점인데, 이렇게 목표행동을 수량화하는 노력들은 음악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진단’이라는 말은 수량화를 위한 치료 이전의 행동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치료사가 치료 시점과 치료 방향, 예상결과 까지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지속적인 과정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④ 목적, 목표, 표적행동

진단 평가가 끝나면 음악 치료사는 종합적으로 치료목적(goal)을 검토하게 된다. 궁극적으로 음악치료가 성공했다는 말은 치료목적을 달성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치료사는 치료목적에 근거하여 치료목표를 세우게 되며, 이렇게 세워진 목표를 측정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정해놓고 목표에 가까이 접근했을 때 성공 치료로 간주되게 된다. 보다 구체적인 치료 목표인 ‘표적 행동’을 세우는 이유는 치료 중에 환자가 보이는 행동을 보다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⑤ 관찰

치료사가 사용하는 가장 가치 있는 진단 평가 중 하나가 ‘관찰’이다. 음악치료사는 다양한 관찰 기록 방법을 사용하여 환자의 현재 수준을 판단하고, 표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관찰하며 초기에 관찰된 내용과 계속 변화하는 내용들을 비교하게 된다. 환자의 행동변화를 기술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관찰 기록 방법으로는 ‘행동 빈도 기록법’, ‘지속 시간 기록법’, ‘동일 간격 시간 기록법’과 ‘계획된 행동 관찰 기록법’ 등이 있다.

⑥ 음악치료 기법(strategies)

음악치료 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음악치료 기법을 고려해야 한다. 음악치료사는 특정한 목적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에 적합한 음악치료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개별 치료를 할 것인지 집단치료를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만 한다. 치료사는 행동적 접근법, 기술 교육을 위한 음악 활동, 통찰 치료 및 그 외 효과가 입증된 다양한 음악치료의 접근법들을 시도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법들을 시행하는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음악치료를 통해 얻어진 치료효과가 치료 이후에도 지속되고 ‘일반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일일 것이다.

⑦ 음악치료 적용계획서

음악 치료 계획서에는 치료과정에서 필요한 치료 기법들을 명시하는 것이다. 또한 치료목표를 단계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이 계획서는 앞으로의 치료계획 설정을 위한 일종의 치료지도의 역할과 함께 치료 과정 중 행동 지표로서의 구실을 하게 된다. 목적으로 삼는 궁극적인 행동을 근거로 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세분화 하게 되면, 일단 성공적인 치료를 위한 준비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치료효과를 결정짓게 되는 치료 설계 방법을 이 시기에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⑧ 계획의 실행

음악치료 계획이 실제로 진행되는 동안 치료사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나 치료 목표와 치료기술 적용방법을 수정한다거나 혹은 환자의 주된 문제 행동에 대해 다시 정의하고 평가하는 등의 일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보다 중요한 것은 치

료사가 일관된 평가 기준을 갖고 환자의 발전 정도를 기록하는 것과 다른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이나 자문을 깊이 새길 줄 아는 자세를 갖는 것 뿐 아니라 치료적인 관계를 꾸준히 반성해 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다.

⑨ 최종 평가

음악치료의 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수집된 결과자료들은 최종보고서의 내용 중 ‘결론 및 추후 치료를 위한 제언’ 부분에 첨가된다. 음악치료사들은 치료 프로그램을 종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주기위해 다른 분야를 추천하는데, 이것은 또 다른 프로그램의 시작을 의미하고, 변화된 행동을 지속하거나 더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다.

⑩ 치료의 종결

치료의 종결은 여러 상황에 따라 앞당겨지기도 미뤄지기도 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내담자를 제외한 여러 영향으로 상담의 기간이 조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치료종결 시점을 결정하는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2. 음악치료의 방법

음악치료는 ‘음악’으로 인간을 치료하는 것이다. 최대한 치료 방법에는 ‘말’을 줄이는 것이 좋다. 환자가 감상을 통하여 한창 자신의 내면을 깊게 성찰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치료사가 설교 아닌 설교를 해버리면 환자의 내면 성찰에 방해받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끝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다시 말하자면, 치료사는 환자에게 마음 깊이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부여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음악 치료의 방법은 범위가 매우 넓다. 치료 목적에 초점을 두고 치료사는 환자와의 첫 대면, 관찰, 진단 평가, 치료 계획, 치료 시행 과정, 계속적 평가, 최종 평가라는 전 과정을 통하여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이 환자의 부족한 기능은 무엇이고, 나는 그것을 어떻게 충족시

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계속해야 한다. 그것이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또한 내담자가 나타내 보이는 육체적·지능적·사회적·정신적 그리고 감정적인 필요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1) 음악치료의 종류

음악치료의 구체적 실행에 있어서 내담자와 치료사 사이의 관계에 의한 분류와 구체적 음악치료의 모델에 따른 분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치료 대상자 중심의 치료

이 치료는 비지시적 상담법이라고도 한다. 이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찾고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을 어떻게 발전시키는가에 우선권을 둔다. 치료사는 보조자의 역할에서 내담자를 돕는 역할에서 진행되는 치료방식이다. 이 방식에서 치료사는 개인의 의도나 가치관보다는 내담자의 의도와 방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방법은 내담자의 의식적인 잠재력을 중시하면서 해결책을 과거가 아닌 현재나 미래에서 찾는 이론에서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치료 대상자 중심 치료법의 강점은 내담자 본인이 치료를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데 있다.

② 치료자 중심의 치료

이 방법은 치료사의 역할이 중심이 되는 것이다. 치료사가 내담자의 치료목표 등 많은 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이 방법의 치료에서는 치료사가 치료 대상자의 결정에 많은 관여를 하게 되므로 내담자의 치료 효과 향상에 치료사의 책임이 따른다. 따라서 치료자의 의도나 가치관이 치료의 목적과 방법 결정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③ 역할 무제한 치료

앞서 기술한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해 말하기는 힘들다. 치료 대상자의 성격이나 상태에 따라 두 방식을 적절히 혼합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말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이처럼 위의 두 가지 방법의 장점을 혼합한 치료를 역할 무제한 치료라고 한다. 이 치료에서 내담자와 치료사는 동등한 위치에서 치료를 향해 함께 가게 된다.

④ 즉흥 음악치료(IMT: Improvisational Music Therapy)

실제 치료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음악과 음악적 요소를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자발적이고 즉흥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즉 “치료사와 내담자가 함께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⁷⁾ 즉흥연주를 이용한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돌프(Nordoff)와 로빈스(Robbins)는 북치는 반응을 통해 장애아의 병리적,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었다. 이 방법에서 음악치료사와 내담자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며 특히, 즉흥 연주시에 불협화음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한다. “이 방법을 자폐아동, 정서장애, 성격장애 아동에게 적용하면 큰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증세는 대개 정서적 불안 상태가 지속되면서 행동이 긴장상태에 있고 근육이 경직되면서 때때로 안절부절하는 양상을 띠게 된다. 이런 환자에게는 근육긴장을 이완시켜 주면서 신체적 에너지를 적절히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요구되게 된다. 이러한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의 시행에서 직접 악기를 사용한 즉흥연주를 통해 긴장상태에 있던 정신적, 신체적 피로와 운동성이 이완되면서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이 입증되고 있다.

⑤ 유도된 상상과 음악(GIM: Guided Imagery and Music)

이 방법은 보니(Bonny)와 새바리(Savary)가 심리통합모델을 기초로 발전시킨 것이다. 이 이론은 정신을 네 가지 수준으로 보는데, 낮은 무의식, 무의식, 보통 의식, 전의식 혹은 초인적으로 의식이 이루어 졌다고 본다.

GIM(유도된 상상과 음악)의 과정은 의식이 높고 낮은 수준 모두가 자아의 인식을 확장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GIM(유도된 상상과 음악)이란 이완된 몸과 마음의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 일어나는 심상을 통해 자아실현을 경험 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심상은 “자신 스스로 표현하는 내부 상태의 단면일 수도 있고, 문제해결을 위해 바람직한 형태로 치료사가 유도하는 도움을 받으며 불러 일으켜지는 상상일 수도 있다.”⁹⁾

7) <Paul Nordoff & Clive Robbin, <Therapy in Music for Handicapped Children>, 1971, London : Victor Gollance LTD, pp.63-70>

8) <윤태원 (1993). **양방체계와 음악요법의 활용**. 객석, p.205>

GIM(유도된 상상과 음악)의 방법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치료에 고전 음악만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이때 잘 알려진 고전음악을 사용하는 경우 내담자의 내부에서 유도되는 심상을 갖기보다는 연주가의 고정된 상상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 널리 알려진 음악은 피하는 경향이 있다. GIM(유도된 상상과 음악)을 사용할 때는 몸을 우선 편안하게 하는 준비운동이 필요하다. 준비과정에서 내담자의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내담자가 GIM(유도된 상상과 음악)의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결정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될 때 대개의 경우 자기실현의 치료적 효과가 동반됨은 물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도 스스로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GIM(유도된 상상과 음악)에서는 음악이 사용되지만 결코 음악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음악의 역할은 반드시 내담자의 내부의 경험과 상상을 유도하는 것을 돕는 하나의 도구의 역할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⑥ 임상적 오르프 숄베르크(COS: Clinical Orff Schulwerk)

이 방법은 처음에 독일의 학교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오르프가 초기부터 올바른 지도를 받으며 스스로 음악을 경험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체 동작, 언어, 놀이, 율동, 악기연주 그리고 노래 등이 통합되어 기초적 음악을 누구나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총체적 체험이 되게 하는 것을 음악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교육에서 시작된 COS(임상적 오르프 숄베르크) 음악치료는 치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음악의 기초적인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즉 리듬, 노래, 언어, 동작, 침묵, 등을 이용하여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방법이다. 음악에 있어서 감각이 지적인 이해보다 앞선다는 전제로 리듬을 통한 접근법을 중시하고 대위법적이며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화성원리, 동작과 노래의 선율, 원색적인 악기사용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직접적이고 종합적인 음악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접근은 인간의 기본적인 동작에서부터 사고 표현과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인간형성 교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결여 되었거나 상처를 입었을 때 이 음악치료가 효과적으

9) <정영조 (1992). 정신 질환자에 대한 집단 음악치료 연구. 인제 의학.>

로 사용될 수 있다.

COS(임상적 오르프 술베르크) 음악치료에서 음악과 칭찬은 기술을 습득시키고 행동변화를 야기 시키는데 있어 강화제의 구실을 한다. 특히 정신 지체자나 장애가 심한 환자를 위하여 모델링과 행동수정의 두 가지 원칙을 이용한다.

COS(임상적 오르프 술베르크) 음악치료의 제 기법을 살펴보면 나의 애칭말하기, 악기로 대화하기, 이야기 꾸미기, 타인에게 선물주기, 버리고 싶은 것 버리기, 악기를 통한 색깔표현, 자신의 감정 표현하기, 내면 들여다보기, 시와 음악 그리고 그림과의 만남 등이 있다. COS(임상적 오르프 술베르크) 음악치료는 다른 치료법과 효과 있게 병행되었을 때 치료효과를 보장해 줄 수 있으며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교감, 행동장애, 발육장애, 교신 장애등에 적용될 수 있고, 치료효과는 어린이에게 대단히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⑦ 발달 음악치료(DMT: Developmental Music Therapy)

이 방법은 우드와 그라함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2-14세 아동의 성장발달에 맞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그 적용은 각 아동의 교과과정 영역 내에 발달분류 단계를 통해 교육하는데 특히, 2-8세의 소아에게 많이 실시하였다. “이 방법은 심각한 정서적 행동상 장애가 있는 아동에게 적합한 정신 교육적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¹⁰⁾

DMT(발달음악치료) 프로그램은 DT(Developmental Therapy) 교육과정을 보충하고 강화하여 만든 음악치료 프로그램으로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을 바탕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된다. 이는 행동 의사소통, 사회화, 수업의 4가지 커리큘럼 영역 안에서 치료적 목적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치료사의 역할은 필요한 음악적 경험과 환경을 제공, 자극시켜 주는 것이며 각 단계에 맞는 참여를 많이 유도하는 것이다.

⑧ 행동수정의 적용(Application of Behavioral Principles)

행동수정 이론가들은 정서적으로 더디고 장애가 있는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에 음악치료를 적용하였다. 이 방법의 목표는 장애 행동을 줄이고 학습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조르젠슨은 “장애 행동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 행동, 짧은 주의 집중, 자아

10) <M. M, Wood and R. M Graham, (1974). **Developmental Music Therapy**. p.135>

파괴적 행동, 그 밖에 여러 바람직하지 못한 반복적 행동을 포함한다.”라고 말했다. 음악행위는 사회적 강화와 함께 장애적인 행동을 줄이고 참가의 수준을 올린 효과적인 것이다.

적용의 예로서 스위치의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의 문제를 스위치를 이용하여 해결할 때마다 음악이 울려나와 그것이 칭찬의 요소로서 만족하여 작용함으로써 점차 문제의 행동을 줄여가는 방법으로 특히, 주의력이 짧고 자기 파괴적이거나 복잡한 문제행동을 하는 경우에 적합한다. 이 경우는 강화와 처벌이 주요기법으로 동원된다. 행동적 원리의 응용은 특히 행동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함을 강조한다. 치료계획은 아동의 정신능력과 그 아동이 행동하기 어려운 행동들을 고려하여, 배우고 변화될 행동을 정확하게 고찰하여 계획을 세운다. 이러한 계획에는 관찰, 기록, 강화, 구체화 등이 포함된다.

(2) 음악치료의 기법

“음악치료에는 네 가지 뚜렷한 기법이 있다. 즉흥, 재창조(또는 연주), 작곡, 감상이 그것이다. 이 음악치료 기법의 종류는 각기 고유한 특성이 있고 각각은 고유한 참여 과정에 의해 정의된다. 각 형태는 서로 다른 감각운동 행동을 가지며, 각각은 서로 다른 지각적, 인지적 기술을 요구하며, 각각은 서로 다른 감정을 유발하며 또한 각각은 서로 다른 대인 과정에 관여한다.”¹¹⁾

다음은 위에 제시한 것과 같은 네가지 기법으로 음악치료의 방법론에 따라 추구하는 목적과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여러 음악치료의 모델들이 사용하는 기법은 몇 가지의 공통적인 범주로 묶어볼 수 있다.

① 즉흥 연주 기법

a. 정의

내담자는 자신의 능력에 맞게 리듬, 노래나 악곡을 즉각적으로 만들면서 연주 또는 노래로 음악을 만든다.

다양한 구조적 수위에 따른 창의성과 즉각적인 표현의 자유 등이 내담자에게 유쾌

11) <Kenneth E. Bruscia (2003). 음악치료>

함을 주는 효과가 있다. 감각의 자극 및 발달이 지각의 인지기술을 발달시킨다. 자기표현과 자아 정체성의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채널인 음악을 제시하는 것이다.

b. 치료대상

강박 신경증 아동, 자기 도취성 인격 장애의 성인, 자폐성 아동, 공격성 청소년, 충동성 아동, 우울증 성인, 발달지체나 신체 부자유 아동, 장애 없는 아동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다.

c. 즉흥 연주의 종류

즉흥 노래 : 즉각적인 가사, 멜로디 및 또는 반주를 만든다.

신체 즉흥 : 몸을 치면서 각종 신체음인 손뼉치기, 손가락 스텝, 두드리기 등을 내는 것으로 즉흥 연주한다.

즉흥 지휘 : 즉흥 연주가들에게 지시를 내리면서 함께 즉흥 연주를 만들어 간다.

복합매체 즉흥 : 목소리, 신체음, 악기 및 합성음을 이용하여 즉흥 연주한다.

비관련적 즉흥성악 : 말이나 이미지를 가지지 않는 즉각적인 성악적 즉흥을 한다.

비관련적 기악 : 소리나 음악 이외에는 어떠한 관련도 가지지 않는 기악적 즉흥연주를 한다.

관련적 기악 : 음악 외적인 것을 소리로 구성하기 위한 기악적 즉흥연주를 한다.

② 재창조 기법

a. 정의

재창조 기법은 미리 작곡된 성악 또는 악곡을 배우거나 연주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특정한 역할과 행동을 수행하는 구조적 음악활동이다. 이 기법은 연주보다는 재창조라는 것에 중심을 둔다.

이러한 역할에 의한 재창조 기법은 감각 운동 기술과 기억 기술이 발달 하고, 주의력과 현실감각을 개선하며, 타인과의 일체감과 내담자의 감정이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적응적이고 시간에 정연된 행동을 촉진시키며, 각종 대인교류 상황

에서 구체적인 역할 행동 학습으로 인해 상호교류적인 집단 기술이 개선된다.

b. 치료대상

주요 대상은 특정기술과 역할 행동을 개발하기 위해 구조가 필요한 치료대상자들,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한편 타인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치료 대상자들과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치료대상자들이 해당된다.

c. 재창조의 형태

기악 재창조 : 악보를 보면서 연주, 미리 작곡되거나 조직화된 음악의 내용을 재현하는 것이다.

발성적 재창작 : 미리 작곡된 노래나 구조적인 음악적 소재를 목소리로 재현하는 것이다.

음악적 재생 : 경연대회, 연극이나 드라마 등 청중이 있는 음악연주에 참가하여 관련된 모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음악 게임과 활동 : 음악으로 구성된 게임과 활동으로 곡조 말하기, 뮤지컬 몸짓 놀이, 음악 의자등 음악으로 구성된 활동을 말한다.

지휘 : 악보나 기타 기본법을 지시하는 바와 같이 연주자에게 몸동작으로 지휘한다.

③ 작곡 기법

a. 정의

노래, 노래의 가사나 악곡 창작 등의 음악적 생산물을 내담자가 만들게 하는 방법으로 조직 및 기획력을 증가 시킬 수 있고, 내면의 경험을 기록하거나 전달하는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다. 또한 자기 책임감 및 창조적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b. 작곡 경험 형태

노래 개사 및 작곡 : 기존의 노래의 말, 어구 또는 전체 가사를 바꾸기도 하고, 독창적인 노래나 노래의 일부를 작곡한다.

성악 · 기악곡 작곡 : 독창적인 기악곡이나 일부 악곡을 창작한다.

기보 활동 : 곡을 작곡하거나 이미 작곡된 곡의 악보를 적는다.

음악 콜라주 : 치료 대상자가 자전적 또는 문제를 연구하는 녹음을 재생하기 위해 소리, 노래, 음악, 음악 마디를 선택하거나 배열한다.

④ 감상 기법

a. 정의

음악을 듣고 그 경험을 침묵으로, 말로 또는 기타 양식으로 반응하고, 음악의 물리적, 감정적, 지적, 미학적 측면을 강조한다. 이런 감상경험으로 청각 능력이 좋아지며, 정서 상태나 정서적 경험을 유발시켜 타인의 의견과 생각을 탐구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수용성을 촉진하고, 신체의 반응 유발시켜 자극 또는 긴장을 이완시키는 작용을 한다.

감상자 감정을 고조시키며 영적 경험을 자극하기도 하고, 심상과 상상을 유발시키므로 기억, 환기 및 회귀를 촉진한다.

b. 감상 경험 형태

감상경험은 신체적 감상으로 몸과 각 부분들 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양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조합된 형태의 진동이나 소리와 음악을 사용한다.

동조 : 각종 진동이나 소리 그리고 음악을 사용하여 신체 내면에 치료대상자와 타인 간의 자율적이거나 자발적인 신체적 반응을 유발한다.

공명 : 다양한 주파수나 주파수 패턴으로 치료대상자에게 신체 일부를 진동시켜 동적 방향을 만든다.

진동 음악 : 음악을 듣는 동안 진동 주파수를 신체에 직접 접하도록 한다.

음악 바이오피드백 : 신체자율기능에 청각피드백으로 음악을 제공하여 신체조절과 긴장이완을 위해 사용된다.

음악마취 : 마취, 진통제의 효과를 강화시키고, 고통과 불안을 줄이기 위해 음악감상을 사용한다.

음악이완 : 스트레스 · 긴장 · 불안을 감소시키고, 의식의 상태를 전환시키기 위해 음악감상을 사용한다.

3. 음악 감상교육

(1) 음악 감상 교육의 의의

음악교육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음악 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과 음악성을 기르며 풍부한 음악적 정서를 함양하도록 체계적으로 도와줌으로써 음악을 생활화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교과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느끼게 하고, 음악의 기본 감각과 기초 기능을 기르며, 음악 경험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위해 탐구하고 연마하도록 하는 한편, 창의력을 발휘하면서 능동적으로 표현하고 수용하도록 지도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게 음악교육의 본질이다. 이를 위해서는 음악교과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요하다 고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음악 감상은 음악의 미적 특성과 의미를 이해하고 즐기는 행위로서, 이는 음악을 형성하고 있는 음악적 요소들에 대한 특징과 생성 원리의 구체화된 의미를 지각하고 감응하는 것을 뜻한다(석문주, 1999).

고등학교 음악과의 내용 체계 중 감상활동에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악곡 형식을 이해하여 듣기
-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에 어울리게, 창의적으로 신체 표현하기
- 다양한 악기 소리와 목소리의 음질이 이루는 조화를 이해하기
- 다양한 연주 형태와 악곡의 특징과 분위기의 관계를 이해하며 듣기
- 다양한 시대와 문화권의 음악을 듣기
- 생활 속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기
- 음악을 듣고 평가하기
- 바른 감상 태도 갖기

음악 감상은 연주자의 예술적인 표현을 통해서 작곡가의 작품 정신에 접근하여 그 예술 작품이 지닌 참된 의미를 창조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예술 작

품을 접하거나, 또 이해하는 두 가지의 의미를 모두 포함해서 감상이라고 부르고 있다.

음악 감상은 미적 의미를 이해하고 즐겨워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음악의 미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음악의 미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음악의 요소들이 표현하고 있는 표현적 요소에 대한 의미는 지각함을 뜻한다.

그러므로 음악 감상이란 인간이 느낌과 감정을 음악의 미적 특성을 구체화시킨 표현 형식을 경험하는 것이고, 표현 형식에 대한 직관적 또는 직접적으로 경험 속에서 발생하는 예술적 의미를 느끼고, 이해하며, 궁극적으로는 인간의 삶에 대해 통찰해 가는 과정이라고 정리 할 수 있다.

지금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개성이 뚜렷해지고 가치체계가 형성되면서 음악에 대한 취향도 생기게 되므로 음악교사의 음악지도가 학생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다. 이 기간에 청소년들이 예술 음악을 통하여 감성적, 지적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이홍수, 1991).

음악 수업에서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음악적 표현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음악 작품속에 내재된 미적 의미를 발견하여 예술로써의 음악의 본질적 특성을 통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음악 감상 학습은 단순히 듣는 소극적인 활동에서 벗어나 다양한 소리를 듣고 탐구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통하여 음악의 감수성을 기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음악을 듣고 즐기는 태도를 갖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음악 감상은 음악교과 교육의 목적으로 감상을 통하여 학생들은 음악적 감수성을 기르고 심미적으로 음악을 체험하고, 감상의 능력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악곡을 감상하면서 학생들이 음악의 중요한 요소들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음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2) 음악 감상 지도

학생들의 사고력과 판단력 등을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폭넓은 음악 표현 능력과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 이해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 또한, 음악에 대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음악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음악 감상 방법에는 듣는 태도에 따라 수동적 감상, 감각적 감상, 정서적 감상, 지각적 감상 4가지로 분류한다(H.M.Miller, 1994).

수동적 감상은 들려오는 음악을 듣기만 하는 또는 들려주는 음악 감상 태도이고, 감각적 감상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즐길 수 있으나 수동적 보다는 조금 더 주의력을 요한다. 정서적 감상은 음악이 불러일으키는 정서나 분위기와 함께 음악에 대한 자신의 반응에 커다란 비중을 두는 태도이며 지각적 감상은 많은 주의력을 집중시켜야하고 어떠한 구조로 음악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필 수 있는 예리한 판단력을 갖추어 듣는 태도를 말하는데 지정한 음악 감상 방법은 지각적 감상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음악적인 이해에 따라 정서가 생기고 미적 가치를 느낌으로써 감상이 성립되는 것이다.

음악을 감상하는 방법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작품을 중심으로 하는 감상법과 연주를 중심으로 하는 감상법이다. 전자는 작품과 작곡자의 예술성을 대상으로 하는 감상법이며 후자는 연주자의 연주기술과 악곡의 해석이 그 대상이 된다. 음악 감상에서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이 작품 자체에 대한 이해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작품 그 자체라고 말하고 싶다. 많은 참고 서적을 통해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해설을 접할 수 있고, 작곡 배경이나 작곡가의 심경이나 처지, 동시대 및 오늘날 유명 인사의 평가, 악보를 토대로 한 작품 분석 등은 곡을 깊이 있게 감상하는 데 꼭 필요하다.

(3) 감상활동의 평가 방향

개정된 2009년 교육과정의 음악과의 평가는 교과 성격과 교수·학습 내용에 따른 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음악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평가가 되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여러 수행 평가의 유형이 있는데 그 중 감상 보고서 평가로 일반적으로 감상문 쓰기에 사용되는 평가 방법으로, 학생들이 음악을 듣고 난 후 음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느낀 감정을 정리하여 작성한 보고서를 평가한다.

음악 감상 수업의 평가는 자신의 느낀 점을 서술하여 학생의 미적체험과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상문 작성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그만큼 평가가 되어야 하며, 학생들이 음악 감상곡을 듣고 곡에서 스스로 음악의 요소를 찾도록 지속적인 평가를 시행 하여야 한다.

Ⅲ. 음악치료 감상기법

"음악은 정서적 측면으로 인간에게 다양한 유익을 줄 수 있는데 음악을 경험하는 사람의 정서를 긍정적으로 전환 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서변화에 효과적인 음악은 직접적, 순간적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어 정서적인 경험을 갖게 하고 감정을 승화시키거나 풍부한 심미적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한다."¹²⁾

음악치료 감상 기법을 통해 고통받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마련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하게 된다. 치료사는 치료대상자에게 마음 깊이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부여한다.

1. 음악치료 감상의 원리

(1) 동질성의 원리

'ISO Principle' 이라고도 하는 이 원리는 감상자의 내면 생태와 외부세계 즉 선택한 음악의 성격이 비슷할 때 최대의 감정 수정과 카타르시스¹³⁾를 경험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내담자가 마음속에 슬픈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슬픈 음악을 통해서 개인의 내면세계와 일치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슬픔에 찬 사람에게 갑자기 수용할 수 없을 정도의 강한 비트의 곡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뿐이다.

우울한 내면상태의 소유자에게 너무 경쾌한 음악을 들려주었을 때는 놀라게 된다. 오히려 비슷한 우울한 음악을 들어야 내면이 열리게 된다. 비행 청소년같이 과잉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클래식같이 차분한 음악에는 마음을 열 수 없다. 그들과 맞

12) <이성임 (2008). 음악 감상 활동 유형이 임신부의 스트레스 및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13) 정신 분석에서 마음속에 억압된 감정의 응어리를 언어나 행동, 음악적 표현을 통하여 외부에 표출함으로써 정신 안정을 찾는 정화법이라 볼 수 있다.

는 정서의 음악을 들려주어야 한다.

내담자가 슬픈 감정일 때는 슬픈 음악을 들려주고 내담자가 들떠있는 감정일 때는 경쾌한 음악을 들려준다.

먼저 내면의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그것과 비슷한 음악을 들으며 우울한 상태-우울한 음악, 기분이 전화되면 차츰 그와 반대되는 이질성 음악 (밝은 음악)으로 바꾸어 들려줄 필요가 있다.

(2) 선호성의 원리

‘환자가 어떤 음악을 선호하는가’ 하는 것이다. 내담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들을 때 가장 많은 정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는 음악을 계속 듣는다면 환자는 아마도 기분 전환이나 병의 치료는커녕 병을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음악을 감상하고자 할때는 먼저 음악 선호도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음악 감상 시에는 내담자의 경험을 살펴보아야 한다. 내담자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음악 감상은 위험하다. 헨서 박사의 실례를 보면 음악 연주회에서의 고통을 경험했던 내담자가 우연히 연주회에 갔더니 과거와 연관된 아픔을 상기시킴으로 아픔을 준다. 또한 산모가 헤비메탈을 좋아했기에 그 음악을 들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아플 때, 배가 아플 때, 머리가 좋아지는 음악 등 특정부분의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음악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마음을 평온케 하는 성질의 음악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헤비메탈은 적합하지 않다. 조성의 변화나 음의 변화가 적고 부드러운 곡이 태아의 정서에 좋다.

클래식이 정말 태교에 좋을까? 음악치료적인 입장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클래식을 접해보지 않고 따분하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효과적이지 못하다.

스타카토가 있는 음악 - 흥분되게 한다.

당김음이 있는 곡 - 흥분시킨다.

부드러운 레가토적인 멜로디 - 안정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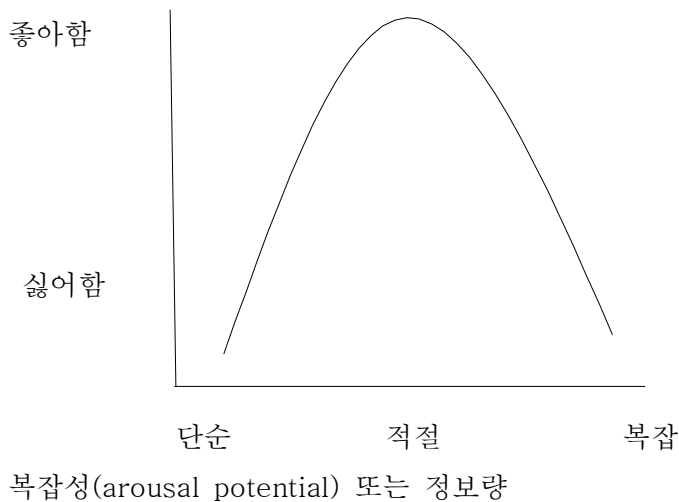
(3) 정보량의 원리

‘환자의 음악적 수용력은 어느 정도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음악을 듣는 감상자가 어느 정도의 음악적 정보량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음악적 정보량이 적은 사람에게 쇤베르크의 12음 기법의 음악이나 고전, 현대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무척이나 따분해 할 것이다. 반대로 음악적 정보량이 풍부한 사람에게 음악적 정보량이 비교적 적은 동요만을 계속해서 들려준다면 역시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음악을 듣는 감상자가 어느 정도 음악적 정보량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 적절한 음악을 선정하여야 하고 감상의 수준도 달라져야 한다.

선호도와 복잡성과의 상관관계를 밝힌 곡선을 의미하는데 정보량이 적정수준에 있을 때 감상자는 가장 큰 만족을 얻는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분트곡선 (역U곡선, 최적 복잡이론)¹⁴⁾

선호도 (hedonistic value)



14) <김종인 (2008). 아동음악치료방법론. 한국학술정보(주). p. 388>

2. 음악치료 감상의 유형

(1) 생리적 음악 감상 기법(Neurological listening)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혈압, 맥박의 속도, 호흡, 피부반응, 뇌파, 그리고 근육 반응 등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와스코(Wascho, 1993)는 정확한 리듬과 선율을 가진 음악은 좀더 뚜렷한 생리적인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생리적 음악 감상 기법의 정확한 명칭은 ‘신경 생리적 음악 감상 기법’이다. 음악 감상을 신경 생리적 변화를 일으키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기법이다. 즉 우울한 정서의 내담자에게 조용하고 우울한 음악을 감상하도록 하여 내면세계를 통찰하고 외부세계의 자극을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경쾌하고 일정한 박의 음악을 감상하는 활동을 통해서 신체가 자동적으로 반응하도록 유도하는 작용을 할 수도 있다.

* Entrainment (음악 동조화 현상) - 신체반응이 외부의 리듬을 들으면서 저절로 반응하는 현상

신경학적 음악치료(neurological music Therapy)기법의 일종인 RAS(rhythmic auditory stimulation, 리듬청각 자극기법)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 다리를 절고 보행능력이 부족한 노인 뇌졸중 환자들에게 일정한 비트가 있는 음악을 들려주게 되면 약 8~10주 후가 되면 그 음악에 맞추어서 보행을 하려고 한다. 8주 전과 8주 후의 그 보행 속도와 보폭이 상당히 일정하고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보행 속도를 평행을 이루게 하는데 일정한 비트가 있는 음악이 유익하다.

생리학적 방법은 심장, 호흡 등의 변화의 진행을 알아보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점은 개인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2) 연상적 음악 감상 기법(Associative listening)

투사적 감상기법의 일정으로서 제시된 소리자극에 대해 연상되는 이미지나 상상을 분석하여 내담자의 현재 정서상태와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 투사, 투영-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밖의 사물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이다.

음악 감상을 하면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만다라를 통해 그려보게 할 수도 있고

글이나 이야기로 쓰도록 할 수도 있다. GIM(Guided Imagery Music)기법과 같이 음악 감상 과정에서 연상되는 심상(image)을 소재로 무의식에 대한 의미 있는 탐구를 수행할 수도 있다.

GIM(Guided Imagery Music)은 무의식, 최면 기법을 사용하여 음악을 들으면서 따라오게 하는 기법이다.

(3) 암시적 음악 감상 기법(Suggestive listening)

음악 감상을 하면서 치료사가 특정한 지시문을 낭독해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명상기법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방법이지만 치료사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합목적으로 접근해 간다는 데서 차이가 있다. 즉, 프로그램 된 배경음악을 통해 형성된 경계선적 무의식 상태에서 치료사의 암시를 통해 감상자의 특정한 신념이나 학습을 유도해 내는 적극적인 음악 감상 기법이다. 이 기법의 적응증으로는 중독성이 있는 문제행동과 낮은 자존감, 불안, 공포장애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와의 불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며느리는 음악 감상을 하는 동안 어머니를 상상하게 한다. 처음에는 멀리 있는 어머니에서 점점 가까이 있는 어머니를 상상해 보게 한다.

(4) 인지적 음악 감상 기법(Cognitive listening)

내담자의 인식능력의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기법이다.

소리 수용 능력 (청각 민감성과 연관), 집중력, 지남력 (지속력), 인지개념들을 습득하기 위해서 감상활동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음악 감상을 하고 나서 그 음악의 노래 제목을 알아맞히는 활동이라든지, 안 보이는 장소에서 치료사가 소리를 낸 악기를 여러 악기 중에서 찾아내는 소리식별 활동 등이 있다.

인식의 진행은 결정짓기가 어렵다.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 생각들과 기억의 그림들이 떠오른다. 그 음악을 들었을 때와 장소를 기억하게 되고 그 기억의 연상으로 생각이 퍼져 나가서 그 음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다. 여기에 바로 음악 치료적 활동으로 기억을 상기시키는 일, 즉 자극제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음악이라도 누가 그 음악을 수행하느냐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것을 안다. 음악은 의사 전달이고, 그 음악을 어떻게 해석, 설명하는가에 여러 가지 차이가 있

다.

예를 들어 음악의 종류, 듣고 있는 지금의 상태, 그리고 감상자의 인간성과 음악의 경험들에 따라 달라진다. 또 음악은 듣는 순간 직관적으로 영향을 준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음악을 들으면서 아! 이것은 바로 나다. 내마음과 똑같다고 느낄 때가 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아주 다르게 느낀다. 그러므로 한 음악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느낌을 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창조적인 진행은 인식의 진행으로 간주된다. 음악은 인간의 내면에서 창조적인 활동을 한다. 작곡가가 음악을 만들 때, 지휘자가 악보를 공부할 때, 음악가가 연주회를 준비할 때 등 음악은 마음속에서 창조하며 기억하게 한다. 또한 인간 안에 저장되어 있는 음악으로,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창조를 한다. 그 예로 유대인들은 나치 수용소에서 그들이 처한 어려운 상태에서 견디는 피난처의 하나로 음악을 생각하였고 그들이 기억으로 내부에 저장했던 시와 음악으로 힘을 얻었다.

(5) 표현적 음악 감상 기법(Expressive listening)

이 기법은 내담자의 심리표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음악 감상 기법이다.

음악 감상은 감상자가 쓰고 있는 페르조나(Persona), 즉 가면을 벗겨내고 본연의 자아를 내보이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감상자의 표현활동을 지지하여 가속화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음악 감상을 하고나서 그 음악을 동작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림으로 그린다든지, 단어나 문장으로 표현하거나, 그 음악에 대해 함께 토의를 할 수 있다. 또 치료사가 미리 편집한 음악을 들려주고 음악의 느낌에 따라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다. 즉 내담자 한 사람이 한 곡을 듣고 나서 이야기를 만들고 그 다음 사람이 다음 곡을 듣고 나서 그 음악의 느낌을 이전 사람이 만든 이야기와 연결시켜 만들어 나가도록 하여 말하기를 유도할 수도 있다.

3. 음악치료 효과

음악과 정서의 관련성은 음악심리학의 실험적 접근 이전부터 음악 기본 이론이나 철학, 미학 분야에서도 다루어졌으나, 감상자의 정서적 반응보다는 음악적 내용

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음악의 심리학적 접근이 하나의 연구 방법으로 사용되면서 감상자 반응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다.¹⁵⁾

음악 감상은 인간의 보편적인 음악적 행동이며 삶의 의미 있는 부분을 차지한다.

음악은 인간의 일상 생활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의 감정의 긍정적 변화, 심미적인 경험 등은 인간이 무의식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내적인 욕구에 의한 것이다.

‘음악 수업에서 학생들이 감상 중 음악 요소적 특성들이 음향적으로 묘사하는 특정한 심상이나 이미지, 혹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 등에 따른 감정적 반응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음악이 하나의 청각적 자극체로서의 의미와 이에 따른 감정적, 정서적 반응에 초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Unkefer, 1990)

Meyer는 정서적인 경험은 삶에서 겪는 정서적 경험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다. 음악 내에서 긴장의 고조와 이에 대한 해결을 통해 정서적 경험을 느낀다면, 삶에서는 한부분에서 긴장을 얻고, 다른 부분에서 만족스러운 경험을 통해 음악적 경험과 일상의 사건에 반응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성향을 의미한다.

Mandler(1984)는 음악의 정서적 반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생리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학생들이 수업에서 치료적 음악 감상기법을 반영하여 음악의 전개를 예측하려는 기능과 해결을 추구하는 각성과 관련된 감각적 과정에서 정서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Berlyne(1971)은 음악의 감상을 미적경험으로 정서, 각성, 보상을 포함한다는 이론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음악적 복잡성을 최대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다르며, 수준에 따라 유쾌함과 불쾌함의 구분이 정해진다고 한다. 음악적 난이도나 복잡성이 가장 적절한 지점을 최적 복잡성이라고 하였다. 다음은 음악 감상기법으로 인한 학자들의 견해이다.

15) <이다연 (2008). 음악감상과 발생 음악활동이 통증환자의 통증, 기분 및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 대학원. p.11>

Smith(1990)

음악 감상은 학생들의 정서적 갈등과 감정을 드러내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에 수동적이고 소심한 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접근이다. 성폭행, 학대는 자신의 속내를 잘 표현하지 않아 치료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치료자를 자신에게 피해를 준 사람과 동일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심한 이에게는 음악 감상같이 수동적인 음악 감상법이 효과적이다.

Byrnes(1996)

음악 감상은 긴장이완의 방법으로 감정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법의 일환으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다. (음악을 들으며 맥박 느끼기,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 느끼기)

- * 동양의 선, 명상 - 1. 자신의 호흡이나 단전 등 한곳에 집중함으로 무상의 경지
- 2. 연상 - 특정한 것을 계속 생각해 보게 하는 기법

Thaut(1989)

감상자가 선호하는 음악을 들으면 불안은 감소하고 마음이 안정되며 스트레스의 정도가 현저히 줄어들게 되어 음악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김군자(2001)가 ‘음악치료는 음악을 심리치료에 접목, 활용하여 우리 인간의 정신적, 사회적인 면의 이상 상태를 복원하고 회복시키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심신 상관이학의도구의 하나인 음악의 효과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음악치료 기법으로 인한 여러 관련 자료들을 통해 얻은 심리적, 생리적, 사회적 반응들로 인한 발달을 들 수 있다.

.생리적 반응

음악적 경험을 통하여 혈압, 맥박의 속도, 호흡, 피부반응, 뇌파, 그리고 근육 반응 등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

음악은 인간 생활에 직접·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인간의 내면에 깊게 작용하여 정서적인 경험을 갖게 하고 감정을 승화시키거나 풍부한 심미적 경험을 충족시킨다.¹⁶⁾

16) <이수경 (2005). 음악감상 중재와 리듬연주 중재가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p-27>

Scartelli(1989)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수질에 대해 언급하고, 리듬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청각정보는 비리듬적인 자극과는 다른 방법으로 더 높은 청각 통로와 더 큰 강도로 신호를 보내게 한다고 가정하였다.

Bradshaw(1977)는 음악정보의 처리과정에 있어서 좌뇌는 음악의 연구결과 분석적인 면에 관여되고, 우뇌는 소리를 종합하거나 정서적인 내용에 더 관련된다고 언급하였다.

.심리적 반응

음악이 인간의 감정,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보편적인 사실이다. 음악 자체가 특정한 감정을 유발한다기보다는 음악을 듣는 사람의 그 음악과 관련된 과거 경험이나 문화적 배경, 선호도와 음악교육 정도등이 음악을 들을 때의 정서적 반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음악적 요소의 특징, 즉 멜로디, 리듬, 강세 등과 화성적 구조 등도 음악을 듣는 사람에게 개인적이고 특정한 경험을 하도록 어느 정도는 결정한다.

음악의 성격은 크게 ‘흥분이나 자극을 시키는 음악’과 ‘안정과 침체를 유도하는 음악’으로 나눌 수 있다. 최병철(1996)은 흥분시키는 음악의 특징은 스타카토 · 당김음 · 강세가 많으며, 조성의 변화가 급격하고 음역의 폭이 넓으며, 다음에 이어질 내용을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안정을 유도하는 음악의 특징은 레가토적인 멜로디를 가지며, 조성의 변화가 거의 없고 음역의 폭이 좁고, 급격한 멜로디의 변화가 많이 없으며 형식적으로는 반복이 많다고 하였다.

이러한 음악은 대상 환자들에 따라 다르게 사용되어야 하며, 환자의 선호도와 개인적인 반응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사회적 반응

각급 학교, 사회 여러단체나 기관, 국가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설립목적이나 이념을 노래를 통해 나타낸다. 또, 종교의식에서도 성가를 통해 그들의 신앙을 확인하고 신을 찬양하는 수단으로서 음악을 사용해 왔다. 뿐만 아니라 음악은 각 시대가 가지는 문화현상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음악은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자기표현의 수단이다. 음악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특별히 언어 사용능력이 제한된 환자라도

치료사와 함께 연주하면서 분노나 기쁨과 같은 자신의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음악적 관계는 사회적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따라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내면의 문제들을 음악을 통해 이야기하고, 집단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교류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대해 메리엄 (A. P. Merriam, 1964)은 음악의 다음 열 가지 기능을 통해 사람들이 음악을 사용하는 이유와 음악의 사회문화적인 기능을 좀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음악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쉽게 표현하도록 해준다.
- 음악은 미적인 즐거움을 더해 준다.
- 음악은 오락의 방법으로 제공된다.
- 음악은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으로 이용된다.
- 음악은 상징적 표현으로 제공된다.
- 음악은 신체적 반응을 유발시킨다.
- 음악은 사회규범과 관련된다.
- 음악은 사회기관과 종교의식을 확인시킨다.
- 음악은 사회와 문화의 연속성에 기여한다.
- 음악은 사회의 통합에 기여한다.

위의 생리적, 심리적, 사회적 반응들을 최병철(1999)이 다음과 같이 요약 정리해 보았다.

- ①음악치료는 적극적인 치료방법으로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인 기능에 강한 영향력을 지닌다.
- ②음악치료는 고통과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효과적인 비약물 치료방법이다.
- ③음악치료는 치료받는 자들의 내면세계를 잘 확립시켜 외부세계에 이를 표현하도록 만든다.
- ④음악치료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주고 사회적인 기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 ⑤음악치료는 치료받는 자들의 학문적 사회적 음악적 훈련배경에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치료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 ⑥음악치료는 치료받는 자들의 생활환경을 보존하면서 치료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가장 경제적인 치료 방법이다.

⑦음악치료는 치료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람에게도 안전하며 긍정적인 치료 환경을 마련하며 치료 목적을 달성하도록 한다.

학생들은 음악과 같이하는 시간적 행동을 통하여 자기 표현, 사회성 그리고 구조성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정서적 · 육체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자질을 촉진하고, 훈련하고 또 습득하여 발전한다.

학생들에게 음악의 요소들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영양이 되었고 감정적인 자기 확신을 주며, 음악은 내면의 자원을 개발하도록 자극하고 조화를 체험하도록 이끌어 준다.

4. 감상 종류 및 방법

학생들은 올바른 정서를 갖기 위해 좋은 음악치료 활동 기준은 학생들에게 음악으로 인한 치료적 경험을 주는 것으로 음악치료 본연의 의미 즉, 음악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기능(정신·신체 건강)의 회복, 유지, 향상을 이루어내는 활동을 의미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 a.적절하고 단순한 활동
- b.활동의 다양성
- c.점차 발전하는 명확한 단계화
- d.깔끔한 종결
- e.음악의 적절성
- f.자신감 있는 진행
- g.사랑스런 눈맞춤
- h.나지막하지만 확신이 있는 목소리
- i.적절한 강화제의 사용
- j.치료사의 친절한 시범
- k.환자 모두가 참여하는 안전한 활동
- l.구체적이고 적절한 치료사의 질문 및 토의 활동
- m.활동의 적절성

학생들이 학습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교사는 그들의 학습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하여 분명하게 상술하므로써 학생들의 음악적 경험을 고양시키기 위한 정보를 찾는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감상 종류 및 방법을 제시하였다.

·명상적 감상 (Meditative Listening)

명상을 지원하거나 특정한 아이디어에 주목하기 위해 음악을 사용한다. 녹음된 음악이나 교사나 학생들이 연주하는 경우이다. 음악을 배경으로 또는 경험을 위한 전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브리미널 감상 (Subliminal Listening)

무의식에 전달하려는 서브리미널 언어메시지나 제안들을 덮어주는 소리로 또는 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자극적 감상 (Stimulative Listening)

감각을 자극하고, 주목하게 만들고, 현실감각이나 환경을 일깨우고, 에너지의 정도를 증가시키고, 감각 운동 활동을 일깨우고, 감각지각을 증대시키고, 무드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음악감상의 경우이다.

·긴장 이완 감상 (Tension Relaxation Listening)

생리적인 측면에서 신경 시스템과 연관 지어서 볼 때 자극시키는 음악은 사람의 교감신경을 자극하여 근육운동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며, 진정시키는 음악은 사람의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도한다.

·유리드믹 감상 (Eurhythmic Listening)

학생들이 운동행동(언어, 호흡, 대소운동 연결, 신체운동, 댄스스텝을 형성시키는 등)을 리듬적으로 조직하고 따라가도록 하는 음악의 사용이다. 이 방법에서는 학생들이 운동행동들이 음악에 대해 투영되는 동작들보다 훨씬 더 규정되고 구조적이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 메소드는 운동행동을 행하도록 하는 직접

적인 신호라기보다는 운동행동을 조직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는 점에서 행동 감상 (action listening)과 구별되어진다.

·지각적 감상 (Perceptual Listening)

청각적 주의력, 지각, 구별, 보존 그리고 청각과 다른 감각방식 간의 관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으로 사용하는 음악감상이다.

·행동 감상 (Action Listening)

특정한 행동적 반응(예. 운동 동작, 일상적 활동, 언어반응)을 유발하기 위한 노래 가사 또는 음악적 큐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조건적 감상 (Contingent Listening)

행동변화를 위한 조건적 강화재로서 음악감상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중개적 감상 (Mediational Listening)

학습과 정보회상의 중개적 전략으로 음악을 사용한다. 음악은 다양한 정보의 종류나 특정한 경험과 연합되어 그것들을 더 견고히 하며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회상적이게 만든다.

·음악 감상 활동 (Music Appreciation Activities)

교사는 학생들에게 음악의 구조, 스타일, 역사적 중요성 그리고 미적 가치에 대해 이해하고 즐기는 것으로 음악감상적 경험을 제시한다.

·노래(음악) 회상 (Song [Music] Reminiscence)

학생들의 지나간 삶의 사건이나 경험을 불러 일깨우는 음악감상의 사용이다. 음악은 성악 또는 기악 그리고 녹음되어진 음악이나 생음악일 수 있으며 지난 과거의 기억과 연관되는 것으로 학생들의 또는 교사에 의해 선택되어진다. 감상 후 학생들의 과거에 대해 함께 회고한다.

·노래(음악) 역행 (Song [Music] Regression)

교사는 학생들로 하여금 회상하기보다는, 과거를 재경험하기 위해, 그래서 과거적 상황에서 과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악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대개의 경우 학생들은 이완된, 조용한 상태에서 음악을 감상한다.

·유도된 노래(음악) 재생 (Induced Song (Music) Recall)

의식적 단계에서 사용할 때 교사는 학생들에게 치료적 과정에 내재하는 특정한 주제, 이슈 또는 사건과 관련되는 어떤 노래(음악)가 있는지를 묻는다. 무의식으로 유도되었을 때에는 특정한 주제, 이슈 또는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서 교사, 학생들의 인식에 예상 밖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노래(음악)가 있는지를 묻는다.

·노래(음악) 커뮤니케이션 (Song (Music) Communication)

교사는 학생들에게 치료와 연관되어 자신을 가장 잘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노래(또는 음악)를 선택하거나 가져오도록 한다. 그리고 나서 교사와 학생들은 음악이 학생들의 삶 그리고 치료적인 이슈에 대해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노래(가사) 토의 (Song (Lyric) Discussion)

교사는 학생들에게 치료적으로 연관되어 토의되어질 수 있는 노래를 가져온다. 노래를 감상한 후 학생들에게 가사의 의미를 살펴볼 것을 요구하고 가사가 한 학생의 삶과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검토하는 질문을 교사와 또는 다른 학생들과 가진다.

·투영적 감상 (Projective Listening)

교사는 소리나 음악을 제시하고 언어적 또는 비 언어적으로든 학생들에게 그것을 확인하고 묘사하고, 해석하고 또는 연상시켜보라 제안한다. 투영적 감상의 기술들은 다음과 같다.

-투영적 소리 확인 (Projective Sound Identification)

학생들은 불명확한 소리들을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한다.

-자유 연상 (Free Association)

학생들은 소리 또는 음악을 듣고 무엇이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을 말로 또는 글로 나타낸다. 이 경우 논리적이거나 어떤 의미에는 주목하지 않는다.

-투영적 이야기하기 (Projective Storytelling)

학생들은 감상한 소리 또는 음악에 관련시켜 이야기를 만들어 낸다.

-음악 드라마 (Music Dramatization)

학생들은 음악에 들은 것을 행동으로 표현한다.

-노래 선택 (Song Choices)

학생들은 좋아하는 노래 또는 강한 정체성이 있거나 연관되는 노래를 선택하여 감상한다.

-음악에 대한 투영적 움직임 (Projective Movement to Music)

학생들은 음악을 감상하고 즉각적인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음악에 대한 투영적 그림 그리기 (Projective Drawing to Music)

학생들은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 그림을 그린다.

-상상적 감상 (Imaginal Listening)

비일상적 의식상태에서 상상적 과정 또는 내면적 경험을 일깨우고 지지하기 위한 음악감상의 사용이다.

다음은 특정한 종류들이다.

①직접적인 음악 상상 (Directed Music Imaging)

학생들은 음악을 감상하는 동안 교사가 제시하는 것을 상상한다. 이미지는 교사 또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으며 본질상 정신적 또는 신체적일 수 있다. 이미지는 구체적이거나 개인적 또는 일반적일 수 있으며 교사의 안내는 다양한 간격의 여유를 가지고 행해질 수 있다.

②유도없는 음악 상상 (Unguided Music Imaging)

학생들은 음악을 감상하면서 교사의 지시나 대화없이 변형된 의식의 상태에 있

는 동안 자유로이 상상한다. 초점을 가지거나 또는 초점없이 하며 보통 짧은 음악을 사용한다.

③유도되어진 음악 감상 (Guided Music Imaging)

학생들은 변형된 의식의 단계에 있는 동안 음악에 대해 자유로이 상상하며 교사와 대화를 나눈다.

④유도되어진 교류적 음악 상상 (Guided Interactive Music Imaging)

학생들은 교사의 안내에 따라 다른 학생들과 음악에 대해 이미지를 함께 만든다.

⑤자가 감상 (Self-Listening)

학생들은 자신과 경험을 반영하기 위해 자신이 녹음한 즉흥, 연주 또는 작곡을 감상한다.

IV.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음악의 감상 능력은 가락, 리듬, 화음, 음색, 셈여림, 짜임새 등의 음악 구성 요소에 대한 청각적 지각 능력과 풍부한 음악적 정서 함양 위해 학생들이 표현하거나 구조화된 감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음악적 정서는 인간의 인지적 영역과 감성적 영역이 통합되어 나타나는 일종의 ‘고등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음악교육에서의 음악치료 감상 방법들 중 두 가지 감상기법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작성 하고자 한다. 그 두 가지 감상 기법 지도안에서 나온 제재곡은 고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중심으로 준비 하였다.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클래식 음악들로 그 중 두 곡을 고등학교 음악 수업에 적용될 음악치료의 감상기법 목적으로 나타내었다.

클래식 음악을 선택한 이유는 클래식은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라는 의미로 순수 예술 음악 가운데 우수한 작품을 말하며, 채영하(1995)는 “고전음악은 음의 고저, 장단, 강약, 음색 등에 세심한 노력을 보여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름다움을 통해 기쁨을 얻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인 공포, 애정, 질투, 동정, 분노 등을 잘 변화시키고 발전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대중음악에 치우쳐 있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음악교육을 필요하므로 클래식 음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다.

1.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설계

(1) 음악치료 감상의 준비

- 음악치료 기술의 훈련

. 조용히 눈을 감고 듣는다. 눈을 감고 음악을 듣는 이유는 음악이 주는 뇌의

- 영향중 상상력과 기억증진에 대한 효과 때문이다.
- 마음속의 선율을 따라간다. 선율에 몸과 마음을 맡기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심신의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음악의 지식에 대해서 깊이 알려 하거나 생각하지 않는다.
- 자신이 원하는 바를 상상하면서 듣는다. 음악은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어느새 뇌에 영향을 미쳐 신체에 자동 감응하게 된다
- 음악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상상을 거부하지 않도록 한다. 음악을 들을 때 떠오르는 상상은 대뇌에 주는 음악의 효과라고 볼 수도 있다.
- 의자에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전신의 긴장을 풀고, 호흡을 한다. 가장 좋은 호흡법은 인위적이나 물리적인 호흡이 아닌, 자연스러운 호흡이다. 메트로놈의 소리에 따라서 4박자의 호흡을 해본다.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면서 들이 쉬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숫자를 세면서 숨을 내쉰다.
- 리듬에 맞추어 호흡연습을 한다.

(2) 음악치료 감상기법 수업지도 내용

① 자유 연상적 음악 감상기법 지도 내용

교사는 학생들에게 음악 감상 전에 특정한 주제를 미리 제공하여 그 주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류의 연상 능력을 각자 정리하고 함께 발표해 본다.

② 긴장 이완 음악 감상기법 지도 내용

음악 감상을 통한 긴장이완기법이라 할 수 있다. 단순한 음악 감상을 통한 긴장이완으로 음악 감상 중 교사의 멘트를 하며 호흡이나 맥박에 집중함으로써 아무런 잡념이나 걱정이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로 나아가도록 한다.

(3) 음악치료 감상기법 수업지도 계획안

앞에서 제시한 음악 감상 지도 내용을 단계적으로 체계화하여 나타내기 위해 음

악 감상 수업 지도 계획안을 다음 <표 2>과 같이 제시한다.

<표 2> 1차시 음악치료 감상 수업 지도 계획안

음악치료 감상 기법	자유 연상적 음악 감상기법
<p>활동 목적</p>	<p>1.정서 순화 2.자기 표현력 향상 3.자기성찰의 기회 제공</p>
<p>활동 목표</p>	<p>감상 전 특정한 주제를 알고, 그 주제에 맞게 연상하여 글로 느낌을 표현한다.</p>
<p>활동 순서</p>	<p style="text-align: center;">주제를 제시한다. ↓ 눈을 감게 한다. ↓ 음악 감상 ↓ 연상된 느낌 정리 ↓ 각자 발표</p>
<p>활동 도구</p>	<p style="text-align: center;">펜, 공책, 오디오, 음악CD</p>
<p>정리/평가</p>	<p style="text-align: center;">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연상된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해 본다.</p>
<p>치료적 효과</p>	<p>음악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종류의 연상 능력을 훈련함. 클래식 감상으로 내면의 정신적인 균형을 이루게 도와 준다.</p>

<표 3> 2차시 음악치료 감상 수업 지도 계획안

음악치료 감상 기법	긴장 이완 음악 감상기법
활동 목적	1.긴장이완 2.정서안정 3.호흡 및 스트레스 해소
활동 목표	음악을 감상하면서 일정한 박으로 호흡을 하며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긴장 이완하기를 한다.
활동 순서	<p style="text-align: center;"> 눈을 감게 한다. ↓ 각자의 맥박을 느낌 ↓ 음악을 들려주면서 교사의 이야기 듣기 ↓ 음악 감상을 하면서 일정한 박으로 호흡 ↓ 함께 느낌 나누기 </p>
활동 도구	오디오, 음악CD
정리/평가	교사는 학생들에게 1분간 맥박수를 재어 보게 하며, 음악을 듣는 동안 순수하게 음악 감상으로만 한다.
치료적 효과	학생들에게 일정한 호흡을 느끼게 하여 그 박이 마음속에 내재될 수 있도록 돕고, 정신과 신체가 일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들 마음에 안정감을 주어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2.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지도 방안

앞서 제시한 것과 같은 음악활동과 음악치료의 효과를 학교 음악수업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수업 지도안을 제시한다. 음악치료는 환자를 위한 것이나, 이를 수업에 적용할 때는 일반적인 학생이나, 정서적 문제가 있더라도 치료의 단계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이에 본래의 음악치료의 프로그램과 제시하는 수업지도안의 계획은 다소의 변화가 있을 것임을 밝혀둔다.

(1) 자유 연상적 음악 감상기법을 적용한 1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표 4> 자유 연상적 음악 감상기법을 적용한 1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자유 연상적 감상
수업 단계	학습 내용	1.정서 순화 2.자기 표현력 향상 3.자기성찰의 기회 제공
도입 (5)	학습 환경 조성	감상할 곡을 소개하고 작곡가나 작품에 대한 간단히 설명한다.
	학습 목표 제시	감상 전 특정한 주제를 알고, 그 주제에 맞게 연상하여 글로 느낌을 표현한다.
전개 (30)	음악 치료 감상 활동	1) 교사가 학생들에게 감상 전 특정한 주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제시한다. 2) 학생들은 마음속으로 선율을 따라가며 각 주제를 생각하면서 조용히 눈을 감고 감상한다. 활동곡♪ : 비발디 '사계' 봄, 여름, 가을, 겨울

		<p>3)비발디 사계를 들으며 교사가 제시한 주제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연상된 느낌을 정리해 본다.</p> <p>4)교사는 학생들에게 눈을 뜨라고 지시한다.</p> <p>5)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느낌을 나눈다.</p>
정리 및 평가 (15)	형성 평가	주제와 관련하여 학생들이 연상된 내용을 정리하고 발표해 본다.

(2) 긴장 이완 음악 감상기법을 적용한 2차시 교수-학습 지도안

<표 5> 긴장 이완 음악 감상기법을 적용한 2차시 교수-학습 과정안

학습목표		긴장 이완 감상
수업 단계	학습 내용	<p>1.긴장이완</p> <p>2.정서안정</p> <p>3.호흡 및 스트레스 해소</p>
도입 (5)	학습 환경 조성	감상할 곡을 소개하고 작곡가나 작품에 대한 간단히 설명한다.
	학습 목표 제시	음악을 감상하면서 일정한 박으로 호흡을 하며 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긴장 이완하기를 한다.
전개 (30)	음악 치료 감상 활동	<p>1)교사가 학생들에게 감상 전 긴장이완 감상법에 대해 설명한다</p> <p>2)교사는 학생들에게 눈을 감게 한다.</p> <p>3)교사는 각자의 맥박을 짚어보게 하고, 맥박을 느껴 보도록 한다.</p> <p>4)교사는 학생들에게 심호흡을 다섯 차례 하도록 한다.</p> <p>5)교사는 음악을 들려주면서 맥박을 느끼며, 음악에 따라 호흡하기를 집중적으로 한다. 처음에는 편안하고 안정된 음악으로 시작하여 점점</p>

		<p>클라이맥스를 만들어 간다.</p> <p>활동곡 : 1단계 안정 - 드보르작 ‘현을 위한 세레나데, op.22’ 2단계 발전 - 드뷔시 ‘목신의 오후에의 전주곡’ 3단계 절정 -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황제’ 4단계 안정 - 베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op.11’</p> <p>6)교사는 결말 부분에 이르러서는 안정되고 편안한 특성을 가진 음악으로 끝나치고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도록 지시한다.</p> <p>7)치료사는 내담자와 함께 느낌을 나눈다.</p>
정리 및 평가 (15)	형성 평가	교사는 학생들에게 1분간 맥박수를 재어 보게 하며, 음악을 듣는 동안 순수하게 음악 감상으로만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치료의 감상기법을 고등학교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을 계획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고등학생들의 경쟁적인 학교 사회에서 여러 문제들을 음악치료로 통해 문제해결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으며 음악치료의 과정에서 집단에 참여하여 음악적 경험을 하는 동안에 음악치료를 통해 정서적 기능과 행동이 향상 되어 사회적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게 한다. 이제까지 음악치료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치료 요법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음악치료의 과정에서 오는 효과들을 생각해볼 때 제시한 음악치료 감상기법 교수-학습 지도안을 학교 교육에서 적용한다면 음악교육으로 정신적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이 연구의 출발점이 되었다.

음악은 범 문화적인 표현 양식이며 음악에는 비 언어적 특성이 있으므로 의사소통의 보편적인 수단이 된다. 또한 음악은 일종의 소리 자극으로써 개인의 상태나 지적 수준에 상관없이 인간의 몸과 마음을 깨우는 힘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즉, 음악은 감각을 자극하고 감정과 정서를 불러 일으키며 생리적·정신적 반응을 유발하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북돋우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음악의 특징들과 치료적 입장을 결부시킨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청소년의 정서 함양 및 자아 개념 증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음악치료를 음악교육 현장에 활용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고등학생들에게 올바른 자의식을 심어 줄 수 있다.

학생들이 과도한 입시 압박과 경쟁적인 학교 사회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내적 갈등을 겪는 학생들이 보다 나은 학교생활 및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음악 치료의 감상 교육을 시행하여 청소년들이 양질의 음악을 듣고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음악을 선택 과목으로 지정하고 국·영·수 등의

이론적 과목에만 치중하는 교육현실을 바로 잡아 음악의 효과성을 청소년들에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음악치료에서 생리적·심리적·사회적으로 나누어 이 세 가지의 효과적인 면을 알아보았다. 결론적으로 음악치료는 생리적인 측면에서는 뇌에 관여하여서 인간의 정신 작용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이상적인 호르몬 분비로 인한 건강한 신체 상태를 유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음악이라는 매체는 특수한 언어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악치료를 통해 음악을 듣고 글로 나타내거나 느낌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정서적인 안정을 기대할 수 있었다. 사회적 측면에서도 음악활동에서 오는 책임감과 상호 협동, 음악적 조화를 위한 배려심 등이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효과들은 우리가 음악교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들과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음악치료를 음악교육에 왜 적용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앞서 연구한 음악치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음악교육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지도안을 계획해 보았다. 자유 연상적 음악 감상기법과 긴장 이완 음악 감상기법의 감상활동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는 예민하고 변화가 많은 시기이며, 청소년들은 정서적인 혼란을 음악치료를 통한 정서적 안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앞으로의 음악 치료는 '예방 치료' 즉 장애 예방에도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제까지 치료적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던 음악치료를 일반 학교 수업에 적용해 본 것은 지금까지의 타 논문과 서적 등의 연구 결과로 음악치료의 효과가 정신적 질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음악치료가 정신적인 문제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미 정신적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처방책으로 사용하는 것 보다는 위의 연구와 같이 음악교육의 범주에서 예방적 차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까지 많은 음악치료와 관련된 연구들은 음악교육의 목표가 학생의 음악적 창의력을 개발하고 음악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음악치료와 음악 교육을 완전히 다른 범주의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음악적 창의력과 능력의 개발은 궁극적으로 전인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

고 전인적인 인간은 사회적으로 조화로운 생활을 위한 인간을 의미하게 된다. 전인적인 인간을 만들기 위한 음악교육에서 정서적 안정이나 정상적인 정신 상태는 필수적인 것이고,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을 위한 음악치료는 음악교육의 한 부분으로 생각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음악치료는 정신적인 질병에 대한 치료적 방법 뿐 아니라 음악교육의 한 부분으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의 음악치료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음악 교사는 전문성은 아니더라도 음악 치료의 수업을 한다면 수업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깊은 지식, 교육, 경험들 그리고 치료사로서의 인성을 갖추도록 계속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학교 교육에서는 음악의 교육적·치료적 효과를 인식하고 다양한 정서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하며 활동 진행 과정에서, 활동 방법에서, 다른 치료 영역에 대해서, 새로운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감상수업을 통한 음악 치료 연구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다양한 발달 영역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바람직한 행동과 자아실현을 도와주는 데 목적을 두고 음악 안에서의 자기표현을 통해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음악치료를 더욱 더 체계적인 발달로 변화 할 수 있도록 유도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고유경 (2004). **치유기능으로서의 음악에 관한 고찰**. 제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군자 (1998). **음악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양서원.
- 김문혜 (2003). **음악치료는 올림다리**. 서울: 도서출판 삶과꿈.
- 김종인 (2003). **행복을 주는 음악치료**. 서울: 지식 산업사.
- 김종인 (2008). **아동음악치료방법론**. 파주: 한국학술정보(주).
- 김종인 (2003). **음악치료 지도서**. 서울 : 군자 출판사.
- 문선혜 (2004). **음악치료에 이해와 적용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태원 (1993). **양방체계와 음악요법의 활용**. 서울: 객석.
- 이다연 (2008). **음악감상과 발성 음악활동이 통증환자의 통증, 기분 및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임 (2008). **음악 감상 활동 유형이 임신부의 스트레스 및 기분상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경 (2005). **음악감상 중재와 리듬연주 중재가 직장인의 스트레스와 불안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아 (2004). **음악치료를 통한 청소년 교육에 관한 문헌 연구**.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종영 (1995). **음악치료의 교육적 효과**.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은희 (1992). **음악속에 숨은 의학**. 서울: 청암문학사.
- 정영조 (1992). **정신 질환자에 대한 집단 음악치료 연구**. 부산: 인제 의학.
-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 최병철 (2010). **음악심리학**. 서울: 학지사.
- Kenneth E. Bruscia. (2003). **음악치료**. 최병철 역, 서울 : 학지사
- M. M, Wood and R. M Graham. (1974). **Developmental Music Therapy**.
- Paul Nordoff & Clive Robbin. (1971) **Therapy in Music for Handicapped Children**, London : Victor Gollance LTD.

저작물 이용 허락서

학 과	음악 교육	학 번	20088198	과 정	석사
성 명	한글: 백선재 한문: 白璇在 영문: Seon-Jae Baek				
주 소	전라남도 여수시 선원동 143-12번지				
연 락 처	E-mail : sostenuto428@naver.com				
논문제목	한글 : 음악치료 기법을 적용한 음악 감상 수업 지도 방안 연구 영문 :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Music Appreciation using Music Therapy				

본인이 저작한 위의 저작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아래 조선대학교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동의합니다.

- 다 음 -

1. 저작물의 DB구축 및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의 공개를 위한 저작물의 복제, 기억장치에의 저장, 전송 등을 허락함
2. 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편집·형식상의 변경을 허락함. 다만, 저작물의 내용변경은 금지함.
3. 배포·전송된 저작물의 영리적 목적을 위한 복제, 저장, 전송 등은 금지함.
4. 저작물에 대한 이용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종료 3개월 이내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작물의 이용기간을 계속 연장함.
5.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을 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대학에 이를 통보함.
6. 조선대학교는 저작물의 이용허락 이후 해당 저작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타인에 의한 권리 침해에 대하여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
7. 소속대학의 협정기관에 저작물의 제공 및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저작물의 전송·출력을 허락함.

동의여부 : 동의 () 반대 ()

2011년 8월

저작자: 백 선 재 (서명 또는 인)

조선대학교 총장 귀하